

## 내가 바라는 2000년대 한국 교회상과 목회자상

이 우 경

(서울대, 한국기독학생연합)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본래적인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지 살펴보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필자가 생각하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듯 싶다.

첫째, 교회는 독특한 기독교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서로가 공유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 성원들을 교육하고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고유의 독특한 내용과 전통을 가진다. 즉 어떤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해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교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있고 그것은 그 교회가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이는 설교, 예배, 찬양, 기도 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결국 교회란 것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공동체 성원들 사이에 교제와 나눔이 있고 그 속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 전서에서 ‘몸과 지체’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세번째로 교회는 고립된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세상, 즉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지역사회도 될 수 있고 국가사회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회와의 관계는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교회의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를 요약해서 외적인 실천이라고 한다면 앞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는 내적인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모습이 각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통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글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교회의 특징적인 세 가지 모습을 언급하고 이 기준에 따라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을 차례로 –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이 글의 목적이 채찍질을 가하여 보다 올바른 교회로 다시 서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왜곡된 모습 몇 가지만 – 짚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첫번째 교회의 모습 즉, “신앙을 가진 공동체로서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삶, 즉 생활과 분리된 신앙일 것이다. 이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회와 세상, 신앙과 생활 등이 선과 악, 성과 속의 개념으로 이원화된 형태이다. 즉 축복, 신앙, 은혜, 구원 등은 교회내의 영역 속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는 현신적이고 교회내에서는 거룩할려고 하지만 사회 속에서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도외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형태는 곁으로는 이런 이원론이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속화된 것으로서 일반 사회에서의 성공이라든지 축복의 개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식의 논리가 교회내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삶, 십자가의 삶의 의미가 퇴색해져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스스로

의 삶을 정당화하게 되어 더 위험한 경우일 수 도 있다.

이와같은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현실개혁적이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현실 도파적인 설교내용이나 기도, 찬양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배가 삶의 중심으로 회복되며, 예배순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함께 설교는 성도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구체적인 것이라야 한다. 또 이와 함께 목회자가 교회 안의 전문가이듯이 평신도들은 세상에서의 삶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업현장에서 크리스챤으로서의 올바른 직업윤리를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면 두번째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에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필자는 교회의 민주화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즉 지금의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만인재사장’의 주장은 어디로 갔는지 총회장-대교회 목사-군소교회 목사-장로-집사로 이어지는 세분화되고 견고한 교직 제도에 의해서 행정에서의 소외, 교회 안과 밖의 이중적 생활, 사방에서 들려오는 교회 비판의 목소리 등의 짐을 진 채 주일 예배에 나와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이들이 바로 평신도 집단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해석이나 교육, 활동내용의 대부분이 목회자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평신도들이 성경은 보지만 여타의 자율적인 인식과 교육활동은 제한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선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위치를 바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즉 목회자는 장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가르칠 때에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평신도와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평신도 사이에

서도 마찬가지인데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전문가나 노동자나 남자나 여자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이 모두 형제요 자매인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자발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목회자는 개방적으로 자율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당회에서 중요한 모든 것이 비공개적으로 다 결정되고 공동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인되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공동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런 평신도의 자발적인 흐름이 연합운동의 흐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애초에 한국교회의 분열은 평신도들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목회자 중심, 개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다. 교회와 교회사이의 친교를 회복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연합운동은 평신도 자발운동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활동을 해 나가느냐’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회가 지역교회로 자리를 잡아 지역의 중심이 되며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너무 비대화되어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교회 공동체 안의 나눔과 교제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교회 밖의 활동에 창문을 닫아 버림으로 인해 교회내로 움츠러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제는 더이상 교회의 건물 내지는 교인의 양적 성장이나 교인의 관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교인의 중심을 이루고 평신도이자 지역주민인 이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공간을 지역사회의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럴 때 이전에 얘기한 생활과 분리되

지 않은 신앙, 평신도 중심의 교회 등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상이 내가 바라는 한국 교회상이다. 그러면 목회자상은 거의 분명해 졌다. 목회자상은 교회상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세상의 성공과 축복의 개념을 극복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설교의 내용도 구체적인 성도들의 삶과 사회현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며 평신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권위적이기보다는 같은 입장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회 성장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의 연륜으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게 어떻게 보면 주제에 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전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외쳤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며, 참다운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는 조그만 소망으로 이 글을 쓴다. 보다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것 같다.